

# 중동 식품시장 트렌드

두바이지사

## 제품의 성분 못지않게 중요한 제품 패키징

-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Dubai World Trade Center)에서 개최되는 2018 걸프푸드 제조 전시회(Gulfood Manufacturing)의 의장 마크 네이피어(Mark Napier)는 최근 들어 많은 소비자들이 섭취 식품의 성분을 중요시하며,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만큼 제품 패키징의 친환경성과 디자인도 구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 현재 식음료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패키징 및 제품 트렌드는 컬러풀한 디자인으로 포장된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이다. 실제로 최근 두바이에서 개최된 스페셜티 푸드 페스티벌(Specialty Food Festival)의 주요 전시품들은 페이스트리, 커피콩부터 단백질바에 이르는 다양한 유기농, 무글루텐 식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중동의 패키징 산업은 2019년까지 연평균 5.2%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국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다.

## ‘2018 걸프푸드 제조 전시회’에서 미래를 보다

- 한편,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2018 걸프푸드 제조 전시회’에서는 푸드테크 서밋(Food Tech Summit)이라는 신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식품 제조산업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모여 사물인터넷(IoT), 산업사물인터넷(IIoT), 블록체인 기술, 로봇 공학, AI 등 차세대 기술들을 식품 제조산업에 적용하는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걸프푸드 제조 전시회 전경

- 또한, 이번 전시회는 재료·가공·포장·자동화·공급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해 진행되었으며, 참가업체들이 산업 전문가들과 만나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동 식품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했다.

## 기술적 특성을 살려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중동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들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고 있다. 특히, UAE의 경우 중동의 트렌드 리더로서 그 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만큼 차세대 기술들을 식품 제조산업에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 식품기업 역시 중동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및 패키징을 개발함과 동시에 IT 강국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차세대 기술들을 식품 제조산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기야 할 것이다.